

美·中 갈등 국면에 대한 한국사회 정치 담론 비교를 통한 비판적 담화분석*

최 태 훈

(건국대학교 부교수)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비판적 담화분석 방법론에 근거해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사회의 전문가들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1) 정치미디어 담론의 특징과 기능, 2) 전문가 담론과 국민 여론의 상호성, 3) 담론 생산에 기저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구조와 담론의 사회적 실천의 연관성 고찰을 목표로 한다. 연구 자료로 유튜브 채널 '최경영 경제쇼: 전병서 vs. 곽수중'과 '김미경TV: 최병일 vs. 이성현'을 채택해 토론자 발화내용과 청취자 댓글을 선별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전병서 vs. 곽수중'은 親中·親美的 성향으로 대조적인 찬반 논쟁 구조인 반면, '최병일 vs. 이성현'은 협력적 문제탐구 방식의 토론구조로 분석되었다. 전병서의 간접화법을 사용한 모호한 친중적 입장표명과 곽수중의 직접화법을 사용한 단호한 친미적 입장 표명 방식이 대조되었다. 반면, 최병일과 이성현의 토론은 '美·中 갈등의 본질은? 화웨이는 무엇인가? 安美經中은 유효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피력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청취자가 스스로 '親美' 또는 '親中'을 판단,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개방형 문제해결 방식을 채택한다.

둘째, 전문가 담론과 시청자 여론의 상호텍스트성과 관련해 '최경영 경제쇼'의 댓글 분석결과는 토론자에 대한 인물평 중심으로 전병서를 칭찬하고 곽수중을 비난하였다. 인물평으로 청취자는 '親中' 성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대로 '김미경 TV' 댓글 분석 결과는 선명한 "親美反中"의 이념적 지향성, "중국공산당"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으로 나타났다. '親中' 성향의 댓글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 사회적 구조와 담론의 연관성에 대해 미국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설

* 이 논문은 2018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에서 발표한 중국에 대한 국가 전략 변화와 전방위적인 조치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미국의 1) 신 냉전 체제 선포, 2) CPDC(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설치, 3) 문명충돌의 세부내용과 중국의 반론 지점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美·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보고 ‘親美反中’ 또는 ‘親中’ 이데올로기의 구성과 재구성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함의를 탐구하였다.

주제어 : 미·중 갈등, 정치 담론, 친미반중, 친중, 비판적 담화분석

1. 서론

1.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018년 3월 미국의 관세부과 결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美·中 무역 전쟁은 대한민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美·中의 대결이 격화될 수록 우리 사회의 담론의 장에서는 한국의 대처법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親美 성향의 이춘근은 “공격적 현실주의¹⁾”라는 국제정치의 이론을 논거의 핵심으로, 미국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 패권을 중국에게 순순히 넘길 나라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 출간된 다양한 중국 관련 연구 서적을 참고하여 중국 위협론을 알리고²⁾, 美·中 간의 격돌에 있어서 미국의 우위를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이며, 美·中 전쟁의 구도 속에서 수퍼파워인 미국에 편승해야 통일 한국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춘근, 2016). 그는

- 1) 존 미어세이머(2017)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에서 공격적 현실주의에 근거해 각 국가의 최대 목표는 생존이기 때문에 현 상태의 세력 균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패권의 최대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격적 현실주의를 국제사회의 대립이 초래한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 구조로 설명한다.
- 2) ‘중국위협론’과 관련된 책 가운데 피터 나바로의 『웅크린 호랑이: 중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가』와 그레이엄 앨리슨의 『예정된 전쟁』이 가장 유명하다. 특히 『예정된 전쟁』은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역사상 신·구 패권세력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전쟁으로 치달은 사례가 75%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춘근의 국제정치’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설 파하고 있다.

둘째, 이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희옥(2018)은 기존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대중 정책을 수립하는 ‘경로 의존’을 벗어나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간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그는 “美·中 무역 전쟁에서 한쪽 편드는 건 치명적 패착”임을 주장 하였다. 중국의 경제적 가치·5G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실험장·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고려한다면, 親美·親中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³⁾

위에서 언급한 두 명의 학자는 비교적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고려해야 할 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전문가들이 대중들에게 그 변화를 전달해주는 과정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美·中 대립이 격화되는 국면에 전문가를 통해 전달된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어 어떠한 결과와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없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먼저 소셜미디어의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美·中 대결 관련 전문가 입장의 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소셜미디어는 대중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무엇이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대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또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입장들이 논쟁의 지형을 어떻게 형성하였는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논지들을 분석하고 그 입장을 정리하여, 현재 범람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회의하고 또는 재해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비판적 담화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연구 방

3) 중앙일보(2019.06.14): 「‘이희옥의 한반도 평화위치’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쪽 편드는 건 치명적 패착」, <https://news.joins.com/>

법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CDA는 언어·이데올로기·권력의 삼각관계를 중심축으로 삼고, 발화된 언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데올로기의 전파를 통해, 권력 주체의 형성 양상을 고찰하는 이론 틀이다(이원표, 2001, 2015; 최윤선, 2014; Fairclough & Fairclough, 2015). 즉 美·中 갈등 상황의 전문가 담론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반응한 대중과의 상호작용은 어떠한지, 이러한 권력의 주체가 형성되어 가는 양상을 관찰하는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또한 비판적 담화분석의 연구 방법은 어느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다. “권력을 실어 나르는 구체적 운반 수단인 담화를 통하여 이데올로기가 생산·재생산되는 과정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최윤선, p21, 2014) 한다는 CDA의 기본 취지와 일치한다면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이에 필자는 페어클로가 소개한 담화분석 3단계를 사용하여(표 1 참고),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하겠다.

(표 1) 페어클로 비판적 담화분석(CDA)의 3단계(최윤선, 2014, p26)

분석차원	단계	내용
텍스트	기술	해당 텍스트에 작동하고 있는 언어학적 속성들을 기술하는 단계
담화수행	해석	텍스트를 텍스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수행과정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단계
사회문화적 수행	설명	텍스트의 산출 및 해석 과정에 작용하는 사회적 결정 내용 및 그것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단계

연구문제 1: 美·中 무역 전쟁 국면과 관련한 해당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의 정치미디어 담론의 언어적 특징과 기능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언어의 해석 차원에서 전문가 담론과 시청자 여론의 상호텍스트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담론 생산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사회구조와 담론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어서 필자가 선택한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첫째, KBS1 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에 방영된 ‘미·중 대격돌, 뒤끝 작렬 중국 VS. 안하무인 미국, 韓의 생존전략?’이란 제목으로 2019년 7월 3일 출연한

전병서와 곽수종의 토론을 선택하였다. 전병서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곽수종은 현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두 사람은 최근 중국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고 있으며 투자와 경제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현 美·中대립의 상황과 한국의 입장에 대하여 설전을 벌인다.

둘째, ‘김미경TV(MKTV) 따독쇼’ 유튜브 채널에 방송된 ‘상상 이상의 두려운 미래? 알아야 살아남는 미·중 무역 전쟁 완전정려- 김미경의 따독쇼 #1’, ‘미·중 전쟁으로 우리가 받는 피해와 앞으로 대비해야 할 일은? - 김미경의 따독쇼 #2’, ‘미·중 전쟁 위기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면? 최악의 시나리오 피하는 법! - 김미경의 따독쇼 #3’라는 제목으로 최병일과 이성현이 출연한 대담을 채택하였다⁴⁾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제목의 책, 『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의 미국편(최병일, 2019)과 중국편(이성현, 2019)을 각각 출간한 저자들이다. 최병일은 이화여대 교수이고, 이성현은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자료로 채택된 유튜브 채널의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채택되었다. 1) 최경영과 김미경을 사회자로 두 명의 토론자가 나와 현 美·中 대립 국면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과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포맷의 유사성, 2) 유튜브 소셜 미디어 채널로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전문가 담론의 동향 파악의 편리성, 3)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과 채널 구독자 수를 고려하였다. ‘최경영의 경제쇼’는 KBS1 라디오임과 동시에 유튜브로 방영되고, 김미경TV는 구독자 수가 75만에 달한다.

이 연구는 두 프로그램의 6인의 참여자, 댓글에 참여한 청취자의 언어를 기술, 해석, 설명의 층위로 질적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언어 텍스트의 발췌를 위해 이 유튜브 채널의 두 개의 프로그램(약 2시간 분량)을 여러 차례 청취하면서 토론 내용 전체를 전사(transcribing) 하였다. 전사 분량은 약 35페이지이다. 전사 후 녹취된 내용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4) 본 프로그램은 2019년 06월 10일과 11일 파트 #1, #2, #3으로 나누어 소개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회 수는 334,346회, 141,400회, 116,412회를 기록 중이다.(검색 일자: 2019.07.02)

위해 개념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즉, 1)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소재, 2) 논점에 큰 차이를 보이는 쟁점, 3) 의미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취사선택하여 ‘선택한 자료에 이름붙이기’(labelling)의 초별 작업을 거쳤다. 다음으로 명명된 자료에 대해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본문에 사용할 인용문을 선별하였다.

2. 美·中 갈등 관련 국내 전문가 담론 1차원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최경영의 경제쇼’ 출연자 ‘전병서 vs. 곽수종’과, ‘김미경 TV’ 출연자 ‘최병일 vs. 이성현’의 담론을 살펴보겠다.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 내는 美·中 갈등 상황에서의 한국사회 담론의 지형을 비판적 담화분석의 1차원적 분석, 텍스트의 특성에 대한 기술을 진행해 보겠다.

2.1 최경영의 경제쇼 전병서 vs. 곽수종

1) 중국 기회론 논쟁: 어부지리와 거인의 어깨 vs. 나라 망치는 길

‘중국 기회론’에 대한 전병서와 곽수종은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병서가 ‘중국 기회론’에 대해 주장하면 곽수종이 이에 대한 반론을 펴는 구조로, 논쟁에 대한 쟁점 담화는 다음과 같다.

전병서(5:31):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해야 하는 것은 어부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중요할 것 같다.

곽수종(11:07): 전병서 박사님 말씀은 어부지리인 측면은 아닌 것 같다. [...] 이것이 과연 기회일까?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 [...]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우리 제조업은 쫓막 망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전(35:58): 기회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것인데, 우리로서는 중국을 어떻게 이용하고 거인이 어깨 위에 올라갈 것이냐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곽수종(39:47): 우리가 흔히 비유할 때 호랑이 등에 타고 달리자 전 소

장님도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한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다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기회입니다, 호랑이 등에 타야 합니다. 중국의 이번의 일대일로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를 하면 나라 망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먼저 전병서는 “어부지리”와 “거인의 어깨에 올라”를 사용하여, 어떻게 해서든 중국을 이용하여 기회를 잡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어부지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이란 표현 역시 거인의 스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즉 힘을 덜 들이고 남의 도움을 받아 잘만 이용하면 한국도 중국 덕에 발전할 수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은 한국이 처신을 잘하면 중국이 한국을 어깨에 태워 줄 아량이 있는 국가임을, 혹은 共生 관계의 국가임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언급들은 한·중이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분히 親中 성향의 발언이라 볼 수 있다.

반면 곽수중은 ‘중국 기회론’에 대해 전병서와 완전히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먼저 그는 전병서의 ‘어부지리’와 ‘거인의 어깨’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거인’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을 ‘호랑이’로 치환하여(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호랑이 등에 타고) 중국이 키 큰 친구가 아닌, 맹수와 같은 국가임을 각성시키고 있다. 특히 상대를 꼭 집어 지적하듯 “전병서 박사님”, “진 소장님”이라 말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또한 뒤이은 그의 표현은 상당히 직설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 “쫄딱 망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나라 망치는 길로 가는” 등의 언급이 보인다. 현재의 美·中의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곽수중은 중국 기회론에 대하여 강력한 반론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중국 기회론을 주장한 전병서는 美·中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한국의 리스크를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곽수중은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 미중 무역 전쟁 종료론 vs. 진행론 논쟁

전병서는 美·中 무역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미국 무역 전쟁 종료론’을 주장하는데 이 주장의 전제는 ‘미국은 중국을 못 이긴다’이다. 박수종은 ‘미국 무역 전쟁 진행론’으로 맞서 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전병서(27:42): 이번 전쟁은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금융에서 돈을 털어가는 것이 이번 전쟁의 마스터플랜입니다. 지금 승부를 예상을 하면, 이미 무역 전쟁은 끝났다. 무슨 말이나면 무역 전쟁에서는 미국은 중국을 못 이긴다.

박수종(32:00): 열심히 수출을 해서 중국 경제적 규모의 입지를 확충시키는 것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야금야금 먹어가는 것이죠. 그 방법은 미국 입장에서 안 되겠다. 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 승부가 끝났다고 하셨지만, 저는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구요, 저는 무역 전쟁이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먼저 전병서가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비 걸고”, “목을 조르고”, “돈을 털어가는”이라고 언급한다. 이것은 불량배가 선량한 시민을 괴롭혀서 돈을 뜯어가는 악행을 널리 알리려는 듯해 보인다. 또한 위 문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빠져있다. 직접적 언급은 안 했지만, 당연히 가해자는 불량배 미국이고 불쌍한 피해자는 중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방식은 중국의 ‘환구시보’의 제목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미국을 비난하고 싶을 때 행위의 주체를 생략한다(최태훈, 2019). 나아가 미국이 중국을 털어먹으려고 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꾸미고 있음을 “마스터플랜”이란 표현으로 극대화시키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이라는 전문털이범에게 목표물이 된 불쌍한 나라임을 부각하고 있다.

나아가 무역 전쟁은 끝났고, 미국이 중국을 무역 전쟁에서는 못 이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발언이다. 예를 들어 A는 B를 이겼다. 혹은 A는 B에게 졌다 등의 간단 명쾌한 문장이 아니다. 다분히 중국이 설파하고 있는 논리를 전병서가 다시 읊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반면 궤수중은 중국이 경제 규모를 늘려 “야금야금” 먹어가는 전술을 쓰려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美·中 무역 전쟁이 승부가 끝나지 않았고, 진행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궤수중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 소장님”을 꼬집어 자신은 전병서와 다른 생각임을 강조하고 있다.⁵⁾

3) 홍콩 사태: 중국 분열 가능성 vs. 중국 공안 통치 해결안

이번에는 궤수중이 먼저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뒤이어 전병서가 궤수중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친다. 홍콩 사태에 대해서 두 사람은 아주 다른 입장을 보인다.

궤수중(15:30): 홍콩 사태를 놓고 봤지만, [...] 중국이 만약에 사분오열 된다면, 한국 정치, 경제, 외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병서(16:40): 지금 홍콩 사태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는 홍콩 사태 자체를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 중국은 무서운 것이 되 끝이 있다. [...] 홍콩 시민 가운데 시위 잘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파악했습니다. 이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 (홍콩 가는 관광객을 잘라 버렸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똑같은 사건을 접한 궤수중과 전병서는 마치 완전히 다른 장르의 발언을 하는 듯하다. 궤수중은 홍콩 사태와 같은 계기를 통해 중국이 4분 5열 되면 한국에게는 유리할 수 있음을 직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親美反中派’⁶⁾의 주장과 그 패를 같이하는 노골적인 표현이다.

5) 『수축사회』(2018)의 저자 홍성국은 2019년 7월 2일 자 ‘815 머니톡’이란 유튜브 채널에서 “무역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으며, 양국은 끝까지 대결 구도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발언하였다. 2019년 8월 2일 트럼프가 다시 3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상품에 관세를 10%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보면, 무역 전쟁이 “진행형”이라는 궤수중의 발언이 현실점에서는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6) 국내 ‘親美反中’을 주장하는 대표학자는 이춘근을 들 수 있다. 그는 地政學으로 미래를 설명한 Friedman 박사의 『Next 100 Years 100년 후』(2009)를 인용하여 중국의 분열을 언급하였다.

반면 전병서는 홍콩 시위 가담자가 이미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파악되었으며, 중국이 관광객을 막으면 홍콩경제는 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그의 표현을 살펴보면 “뒤끝이 있다”, “무섭다”, “잘라 버렸다” 등으로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한국의 사드 사태 때 중국이 보여준 “뒤끝”에 해당하는 조치를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임을 직감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중국에게 또 당할 수 있다는 경고성 위양스를 담고 있다. 나아가 안면인식 기술로 사회를 통제하고, 관광금지로 돈을 끊을 수 있는 “뒤끝”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홍콩 사태 같은 작은 일로 중국이 4분 5열 될 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다.

4) 한국 대응방안 관련 美·中 체제 인식: 親中 vs. 親美

다음은 전병서와 곽수중이 언급한 가장 親中的, 가장 親美的 발언이다. 이것은 현 국면과 관련한 좌표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를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병서(16:45): 중국은요 3000년 동안 한 번도 민주주의 한 적이 없습니다. [...] 지금 중국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 자금성의 주인은 모택동이고 모택동이라는 것은 공산당을 이야기합니다. [...]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체제문제들은 다르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곽수중(24:24): 우리는 미국한테 줄서겠다. 전통적인 미국의 경제적인 지원 틀 안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켜고, [...]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먼저 전병서는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당이 주인인 나라임을 전제하고 발언을 시작하고 있다. 필자가 위 내용을 전병서의 가장 親中적인 발언으로 선택한 이유는 공산당이 주인인 나라의 시스템을 우리의 잣대로 보지 말아야 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국(2018)은 그의 저서에서 중국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앞에 ‘중국만의’, ‘독특한’, ‘고유한’, ‘중국식 성장모델’ 등의 수식어를 붙여, 그들만의 ‘다름’을 설명하고 있

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도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하는 듯하다고 말하고 있다(p.146). 따라서 전병서가 중국의 체제문제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한 점은 중국이 사용하는 체제설명 방식을 그대로 수용, 재생산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親中 성향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곽수중은 “미국한테 줄서겠다”,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등으로 자신의 親美 성향을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전병서는 은유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잡도록 설명하고,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은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음을 밝히고, 때론 중국의 “뒤끝”을 강조하여 중국의 무서움을 조장하며 그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도록 유도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설파하는 親中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곽수중과 같은 ‘우리는 중국한테 줄서야 한다’와 같은 직접적인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은유와 돌려 말하는 화법의 채택이 눈에 띈다. 반면, 곽수중은 직접회법과 직설적인 톤을 사용한 선명성의 강조와 논리적 반박의 근거 제시를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가 보인 오만한 듯한 ‘親美’ 이데올로기 설파는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문화에 영향 받았음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자신감으로 곽수중은 전병서의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중국 기회론은 허구이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 전쟁은 진행중이며, 중국이 4분 5열 되길 바라며, 미국에 줄을 서야 한다는 親美 성향을 직설적으로 밝히고 있다.

2.2 ‘김미경 TV’ 최병일 vs. 이성현

1) 美·中 갈등의 본질 인식 일치: 체제와 가치의 대립

최병일과 이성현은 현 美·中 갈등의 본질은 무역 갈등이 아닌 더 근원적인 문제인 ‘사회주의’ vs.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대립으로 보고 있다. 즉 두 사람은 체제의 대립을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 국면으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의 일치된 인식을 아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이성현(4:16): 시진핑은 21세기에 자유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더 우월하고 효과적인 정치시스템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김미경#2)

최병일(7:52): ‘이건 물건을 더 많이 파는 전쟁이 아니다. 가치의 전쟁이다. 가치의 전쟁은 21세기에 어느 국가 시스템이 더 탁월한가를 보여주는 (김미경#2)

이성현(10:37): 중국에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국가는 미국 하나뿐이다. [...] 미국에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 딱 하나.” 여기에서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없는 가치의 대립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미경#2)

위 발언을 살펴보면 “정치시스템”, “가치의 전쟁”, “국가 시스템”, “가치의 대립”이란 표현이 핵심어로 부각 되어 있다. 최병일과 이성현은 美·中 갈등의 본질을 ‘자유주의 vs. 사회주의’라는 정치 및 국가 시스템을 놓고 벌이는 가치의 대립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성현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美·中은 상대국으로 인한 체제전복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2) 화웨이 사태 인식의 일치: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최병일과 이성현은 화웨이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민간기업 통제와 이를 통한 광범위한 디지털 감시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최병일(13:10):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그 자체라는 것이 미국의 분석

7) 백악관 경제수석 레리 커들러는 2019년 7월 16일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트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소련과 같은 붕괴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암묵적으로 항상 있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도 붕괴시킬 것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Larry Kudlow, the White House chief economic adviser, said in a July 16 interview with Sinclair Broadcast Group. The possibility that China could collapse like the Soviet Union has “always been an undercurrent” in the trade war, he said.

(<https://www.nytimes.com/2019/07/20/us/politics/china-red-scare-washington.html>)

이다. (김미경#2)

이성현(16:10): 화웨이는 중국 정부가 뒤에 있고 [...] (김미경#2)

이성현(17:28): 서버 트래픽을 일일이 감시하면서 체제에 반감을 주는 메시지를 거르고 있죠. [...] 중국 공산당이란 조직은 기술의 발전을 위협이 아니라, 잘 활용하는 사이버 정부 (김미경#2)

최병일(18:42): 중국 공산당은 종합무역상사 [...] 기술이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허물어뜨리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중국 공산당은 이걸(SNS를) 마스터한 거예요. (김미경#2).

최병일은 미국의 분석을 인용하여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그 자체”라고 일종의 직유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성현은 화웨이 뒤에 중국 정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병서가 ‘최경영의 경제쇼(6월 11일)’에서 화웨이가 “민간기업”이라고 말한 것과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⁸⁾ 나아가 두 사람은 중국 공산당을 “사이버 정부”, “종합무역상사”로 은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산당의 권력이 만들어 내는 감시사회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두 토론자의 화웨이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을 통해 청취자는 간접적으로 이들이 ‘親中’에 동의하기 어려운 세력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對美·中 전략 변화의 필요성 일치: ‘安美經中’ 패러다임 종언

최병일과 이성현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패러다임의 종말에 대해서도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安美經中’의 패러다임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두 토론자는 이와 같은 한국의 포지셔닝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8) ‘최경영의 경제쇼’ 6월 11일 자 12분 26초를 들어보면, 전병서: “화웨이는 중국의 민간기업입니다. [...] 화웨이를 딱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첫 번째는 중국 기업의 생태계와 공급망을 어떻게 붕괴시키는가 시범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위반했다. [...] 세컨더리 보이콧을 위반하면 어떤 형태로 벌을 주는지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세 번째, 중국의 5G 건설을 원초적으로 막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뒷부분을 들어보아도 ‘공산당’ 배후에 대한 설명은 없다.

최병일(2:32): 안미경중(安美經中)이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패러다임은 끝났다. [...] 최선의 시나리오는 없다. 최악을 피하는 거다. [...]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대가 치를 각오해야 한다. (김미경#3)

이성현(5:32): 우리가 美·中 사이에서 임도 보고 뿔도 따는 시대는 지났다. (김미경#3)

최병일(9:53): 중립 될 수 없어요. 양쪽(美·中) 모두 확실하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미경#3)

최병일은 “安美經中”의 패러다임이 종말을 맞이한 것을 넘어 최선은 없고, 최악을 피할 뿐이라고 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 국면 인식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돌파 방안으로 美·中 가운데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美·中이 모두 한국을 자기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성현 역시 “임도 보고 뿔도 따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들의 발언은 발췌한 인용문의 전후에 제시된 다양한 통계 수치와 미중 무역 전쟁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은 과거 대한민국의 외교전략과 현재와 미래의 전략은 180도 선회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정적이고 대전환을 역설하는 강력한 톤의 사용과 더불어 주장되고 있다.

4) 한국 대응방안 우선순위 일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최병일과 이성현은 ‘安美經中’의 패러다임이 끝난 현시점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먼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親美’인가 ‘親中’인가의 양자택일에 앞서서 한국의 대응방안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최병일(4:32): 우리는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나라에 붙을까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신냉전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김미경#3)

이성현(8:21): 미중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너는 어떤 나라냐? 내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이고? [...] 우리가 포기할 수 있

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김미경#3)

먼저 최병일은 美·中 대결을 “21세기 신냉전”으로 보고,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생각해보아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이성현은 우리가 지킬 것과 포기할 것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토론의 말미로 갈수록 격정적인 톤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이성현 8:40, #3)”에 대해 비장하고 격정적인 톤으로 질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론자들이 토론의 말미에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한 선명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반해 이들이 제시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한국인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는 열린 방식의 답변을 내놓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의 토론은 자신들이 최근에 출간한 책의 내용에 대해 대중들에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쉽게 설명하는 텍스트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개 과정은 찬반 논쟁이 아닌 문제탐구 토론의 방식을 채택하고, 제시·침언·설명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최병일과 이성현은 의견의 일치를 보는 특징이 있다. 또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親美’ 또는 ‘親中’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입장표명을 유보한다. 그러나 토론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이들의 비판적 담화를 근거로 유추해보면, 시청자들이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여 ‘親美’의 길을 스스로 택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도록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전문가와 시청자의 상호텍스트성 2차원 비교 분석

비판적 담화분석 방법론의 2차원 분석은 담론이 전파되는 미디어 채널의 속성과 그에 호응하는 시청자 속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청자와 높은 상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댓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서 1차원 전문가 담론 분석과 시청자의 여론이 어떤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경영의 프로그램이 ‘경제’에 집중하는 반면, ‘김미경TV’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재테크’ 방법 등과 같이 실용적인 주제 또는 ‘자기계발’과 ‘힐링’ 주제 등이 대부분이다.

3.1 ‘최경영의 경제쇼’ 채널 분석과 ‘美·中 대격돌’ 댓글 분석

최경영은 KBS ‘새노조 공추위’ 간사로 있을 시에 KBS 사장에게 “이명박의 강아지야 나가라”라는 문자를 보낸 후, 해임 처분→징계 감경→사직까지 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복직된 인물이다. ‘親文’적 성향이 강한 기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 채널은 진보,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이 구독·칭취하는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최경영의 경제쇼’는 본래 ‘KBS1라디오’ 공중파 채널의 프로그램임으로 그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음은 ‘최경영의 경제쇼’ 2019년 7월 3일 방영된 ‘미중 대격돌’ 프로그램에 대한 유튜브 댓글을 분석한 내용이다. 7월 15일 검색기준 조회 수 14,358 회이다. 전체 댓글 63개에서 상위 20개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꺾수종에 대하여 칭찬하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20개 가운데 19개가 꺾수종을 비난하고 있고, 그나마 나머지 1개는 최경영을 칭찬하고 있다. 반면 전병서에 대해서는 11명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그 칭찬의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이 훌륭합니다.”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출중한 분석에 존경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전병서가 제시한 “대안”, “의견”, “분석”, “정보”에 대하여 좋고, 동의한다는 이야기이다. 인물평 중심의 댓글 특성상 구체적으로 그 세부 내용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반면 꺾수종에 대한 19개의 비난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감정적이고 주제에 맞지 않는 궤변으로 횡설수설하시네요.” “대안 제

시와 행동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비만 거는 형국, 참으로 비열한 논쟁 태도다.” “전공이 비판론입니까?” “진영논리로 경제학 논리를 갖다 붙이는 데 급급하네요.” “냉전 시대쯤에 있던 경제 논리 수준이네요.”

댓글은 박수종에 대하여 대안이 없고, 비판적이며,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불량하고, 냉전 시대, 진영논리의 뒤떨어진 경제학을 언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도 덜되었고 실력도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앞서 2장 1차원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전병서의 의견과 대안은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박수종처럼 대답할 수 있는 내용임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박수종은 “미국한테 줄서겠다”,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등의 親美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정도의 노골적인 발언이 나오면, 댓글에서도 ‘너는 미국 가서 살어라’ 혹은 ‘친미시대주의자야’ 등의 고강도 비난이 나올법하다. 그러나 위 댓글은 너무나 확실히 ‘미국’ 혹은 ‘친미’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박수종의 토론 태도로 보이는 인간성과 논리를 비난하고 있다. 이 같은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댓글이 나온 것은 본 프로그램의 청취자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⁹⁾

비판적 담화분석의 이론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경향은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가 다음과 같음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 의도적으로 ‘親美’, ‘反中’과 같은 표현을 극도로 자제한다. 여론을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둘째, 현재의 美·中 대립 구도를 ‘냉전’의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로 몰고 있다. 이

9) 필자가 관련 TOP20 이하의 나머지 댓글 전체를 살펴보니 박수종에 대해 우호적인 댓글을 4개 발견하였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소개하겠다.

- ① 광 교수의 진단과 대응도 매우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 ② 광 박사 시각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 ③ 댓글에 박수종 박사님 안티가 많네요~ 박수종 박사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④ 리플이 삭제되네요. 신고당하면 삭제되니까? 박수종씨가 일방적으로 게시판에서 까이니까 댓글 달기 시작했던 것이고 원사이드하게 까이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전병서씨는 시진핑 편드는 패널은 확실하죠.(4번 댓글은 댓글의 죄하단에 자리하고 있다)

것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데올로기전과 일맥상통하고 상호텍스트적이다(4장, 시진핑 주석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 내용 참고). 중국은 ‘냉전’을 진영싸움이라 생각하고, 미국이 동맹이나 연합세력을 형성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¹⁰⁾ 또한 한국이 미국에 붙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에 대한 인물평이 중심이 되고, ‘냉전’과 같은 민감한 어휘는 1회 사용되었다. 셋째, 여러 댓글이 전병서의 ‘대안’, “의견”, “분석”, “정보”에 동의하였듯이 중국에 붙어 금전적 기회를 얻는 것이 한국이 갈 길을 입을 은근히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중국이 한국에 바라는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상호텍스트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2 ‘김미경TV’ 분석과 ‘미·중 전쟁’ 토론 댓글 분석

김미경은 대학 전공과(작곡과)는 무관한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여성이다. 여성의 꿈과 성장을 복돋우는 ‘국민 언니’를 자처하고 있으며, ‘알라딘’에서 검색되는 『김미경의 인생美답』의 저자소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엄마들 수만 명을 만나며 쌓아온 한마디 한마디를 모아 이 책에 담았다”라는 표현이 보인다. 그만큼 소통을 중시하는 캐릭터로 보인다. ‘김미경TV’ 유튜브 채널은 2010년에 가입하여 현재 752,197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김미경TV’를 통해 소개된 최병일·이성현의 대담은 #1, #2, #3로 나누어져 6월에 유튜브에 공개되었다.¹¹⁾ 파트 별로 댓글이 작성되어 있고 분량이 대단히 많은 관계로 각각 세 파트별 TOP20, 전체 60개의 댓글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 일자는 7월 2일로 중심내용을 주제어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10) 2018년 10월 9일 ‘환구시보’: 「펜스 “격문”연설, 미국 정말 신냉전의 길로 가려 하나? (彭斯“檄文”演講, 美国真要走“新冷战”之路?)」

2018년 11월 15일 ‘환구시보’: 「미·중 냉전? 이런 웃기는 이야기로 위협하지 말라(中美冷战? 別用這樣的笑話當威脅)」

11) ① 김미경 #1(게시일 2019.06.10): 조회수 335,206, 댓글 381

② 김미경 #2(게시일 2019.06.10): 조회수 141,561, 댓글 269

③ 김미경 #3(게시일 2019.06.11): 조회수 116,557, 댓글 551

“反中親美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김미경 #1) “저는 親美反中입니다.” (김미경 #2)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함!” (김미경 #1) “동맹인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김미경 #3)

“절대 중공과 가까이하면 안됩니다.” (김미경 #1) “중국 공산당이 커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듯합니다.” (김미경 #2)

“애국하셔야 합니다.” (김미경 #1)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김미경 #2) “나라가 망해가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두렵습니다.” (김미경 #3)

최병일과 이성현의 텍스트와 댓글 텍스트의 상호성의 측면에서는 대담의 주제가 美·中 갈등과 관련한 포지셔닝의 문제와 대응방법을 다루는 만큼 청취자의 댓글은 이념 지향적이거나 이념 편향적인 것이 대부분이다¹²⁾. 특히, “反中親美” “親美反中”과 같은 직접적인 구호성 댓글, “중공” “중국 공산당”에 대한 레드콤플렉스, “애국”과 같은 핵심어들이 반복되어 사용된다. 전체 Top 60개 댓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댓글 60개 가운데 ‘親中’성향의 댓글은 단 하나도 없었다.¹³⁾ 최병일과 이성현의 대담은 사실상 중국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대담의 마무리에 두 사람은 마치 중립적으로 ‘한국의 올바른 선택’, ‘손해 볼 각오’, ‘정체성 확립’, ‘사회적 합의’ 등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문제점을 인식한 시청자는 미국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각오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국가이니, 다 같이 그렇게 합의하자는 취지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친편일률적인 댓글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두 대담자의 의도와 댓글이 상호텍스트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反中親美(4회)’, ‘親美反中(3회)’, ‘反中(1회)’, ‘동맹(5회)’, 중공(3회), 공산당(4회)이란 어휘를 명확히 사용한 댓글이 조사되었다. 反中親美=親美反中=反中=동맹이 강조점만 다를 뿐 같은 이념적 지향을 보여준다는 측면

12) 이와 같은 댓글의 직접적인 이념지향성은 ‘최경영의 경제쇼의 전병서 관수종 토론의 인물평 중심의 댓글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13) 전체 댓글(1,201개)을 대상으로 살펴보아도 노골적인 ‘親中’성향의 발언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다만 美·中이 한국에게 압박을 해도 여전히 어느 한쪽으로 편 들면 안 된다고 ‘중립외교’를 강조하는 댓글이 6개 발견되었다.

에서 13회 사용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중공=공산당도 같은 이념적 지향으로 7회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이 어휘들은 모두 ‘親美反中’ 성향을 드러내는 주제어로 총 20회로 대분류할 수 있다. 한편 ‘反中’을 ‘親美’ 앞에 배열하여 사용한 구호가 이채롭다. 우리의 습관으로 보면, ‘親美反中’이 어감상 편안하다. 이것은 ‘反中’의 기치 아래에 묻치고, ‘親美’에 대한 반감을 상쇄하고 싶은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어휘의 사용을 통해 텍스트에서 밝힌 한국의 올바른 선택과 정체성, 사회적 합의를 ‘親美反中’과 ‘한미동맹’, ‘반공산당’으로 귀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최경영의 경제쇼’ 7월 3일 자의 인물평이 주가 된 댓글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댓글 가운데 대담자들이 제시한 현재의 난국과 대안에 대한 동의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특히 감정적으로 두려움, 나라가 망해간다는 인식, 애국심 고취 등이 눈에 띈다. 이성현은 여성 시청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수위 조절하여 발언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후손(자식)이 라떼 한 잔도 마실 여유가 없어질 수 있다 (김미경TV #3, 00:10)”라고 발언한다. 또한 한국이 조공국으로 전락(김미경TV#2, 19:00)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조공국은 물건만 상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공녀로 보낼 수 있음을 연상할 수 있다. 자식 걱정과 인권을 중시하는 여성 시청자¹⁴⁾들이 많은 채널에서 상당한 공포, 불쾌감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사회구조와 담론의 사회적 실천 3차원 비교 분석

한국은 중국과 수교를 한 이후 美·中간의 위치설정에 완만한 변화가 있었다. 즉 완벽한 ‘親美’에서 ‘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었다. 중국은 1992년 한국과 수교 당시 GDP 순위 10위에서 25년 만인 2016년에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安美經中’이란 패러다임의 전환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직접적으로

14) 사회자(김미경)의 언사와 댓글에서도 “우리 주부들도 세상 물정 알아야 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결부된, 한국이 설정한 좌표였다(전병서, 2017, p.140). 이는 미국과 중국 모두를 아우르는 양다리 걸치기 전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美·中의 충돌은 지금까지 한국이 취해온 ‘안미경중’ 전략에 심각한 제동을 걸어오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America First”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中國夢”의 대립은 우리가 가지고 왔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한국은 美·中의 무역 전쟁 초기에 해당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8년 한국 언론의 분위기는 ‘안미경중’ 전략에 대한 논의는 없이, 이 무역 전쟁은 누가 이길까?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빨리 굴복시킬까? 등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부과는 양국경제에 모두 피해를 입히는 조치임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¹⁵⁾

이에 美·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안미경중’ 스탠스를 유지하며, 더 나아가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즉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 사이에 미국 내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4.1 미국의 전략 변화

2018년 10월 4일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을 보면(표2참고), ‘신냉전 선언’이란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¹⁶⁾ 중심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중국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이성현은 김미경TV(게시일: 2019.06.10. #1)에 출연하여 최병일과 토론하는 가운데, “美·中 무역 전쟁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한국, 언론,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학계에서, 총체적인 실수를 좀 했다. 관세 전쟁이니까 무역 다툼이니까 美·中 갈등이 금방 끝날 것이다. 경제 논리로 보면 둘 다 손해인 것을 왜 하겠느냐? 그러나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김미경TV #1).

16) <https://www.pennmike.com/news/>: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더글러스 딜런 교수는 13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을 통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대중국 비판 연설이 사실상 중국과의 ‘신냉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표 2〉 중국 공산당 전략과 전술에 맞선 미국의 조치

	펜스 허드슨 연설 내용	미국의 조치
①	中國製造 2025라는 계획을 세워서, 로봇산업, 생명공학, 인공지능을 모두 포함 전 세계 선진기술의 90%를 확보하려 함	화웨이 타격 ¹⁷⁾ , 운영체제와 핵심부품 사용제한, 반도체 제조 장비 및 핵심 소재 수출제한
②	21세기 세계경제 사령탑 목표 국가공무원/기업체에게 미국 지적 재산권 획득 지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 (무역협상 항목)
③	중국 내 비즈니스 허락의 대가로 미국 기업들에게 기업 비밀 요구	기술이전 강요 방지 요구 (무역협상 항목)
④	혁신적 미국 기업 인수 합병을 주도면밀하게 조정하고 지원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업 등에서 중국 자본 퇴출
⑤	중국 정보기관들이 미국 최첨단 군사 청사진들을 대규모로 도둑질(theft)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 신장
⑥	미국에서 획득한 기술을 이용해 전쟁 무기를 생산하여 아시아 육해공/우주에서 미국 군사적 이점 잠식 시도	국방비 최대폭 증가 ¹⁸⁾ 핵무기 첨단화, 첨단 전투기/폭격기 개발 배치, 차세대 항공모함/전함 건조, 우주 지배력 강화
⑦	미국을 태평양 서쪽 지역에서 밀어내 동맹국 협력 차단 시도 중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발표 (2019.06.01) ¹⁹⁾

펜스의 연설 이후 미국의 분위기는 더욱 강력하게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2019년 3월 25일 트럼프 행정부 전직 관료와 자문관들이 모여 ‘현존위협 대책위원회: 중국’(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CPD)라는 기구를 출범시킨다. 중국 공산당의 나팔수가 ‘환구시보’인 것과 같이 CPD의 멤

17) ‘국가방위전략’과 일체로 된 ‘국방지출권한법’에는 미국의 국방 관련 조직과 정부 기관이 화웨이와 ZTE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문으로 기재했음.

18) 2019년 미국 국방비 예산 7,160억 달러

19) 아시아 지역의 위협인 중국과의 경쟁을 억제하고 승리하기 위해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 필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미국 목표 달성 의지 피력. 본문 내용에 한·미·일 안보 삼각관계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밝힘.

버인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즉 “중국의 발전을 막는 것이 우리 시대의 소명”²⁰⁾, “화웨이 이를 죽이는 것이 중국과 무역협상을 하는 것보다 10배 더 중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자본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자신의 시간 전부를 쏟을 것”,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며, 매우 길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여론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도록 몰고 있다.²¹⁾

나아가 미 국무성 정책기획국장으로 임명된 Kiron Skinner 박사는 “이것은 그동안 미국이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문명과 이념(a really different civilization and a different ideology)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2019.04.29.).²²⁾ 그녀의 발언 그 다음날 ‘The Washington Examiner’의 조엘 거크 기자는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 ‘문명의 충돌’ 전쟁을 준비한다는 기사를 쓴다. 양국의 패권전쟁을 “문명의 충돌”로 정의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4.2 중국의 대응과 전략

중국은 반대로 미국의 이데올로기 전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한다. 중국이 매체를 통해 ‘신냉전’, ‘CPD’, ‘문명충돌’ 논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면 대단히 흥미롭다. 중국의 매체는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수행한다는 전제 앞에서는 사실상 전부 한통속이라 보아도 무방하다(최태훈, 2018). 따라서 공산당의 나팔수로 대표되는 ‘환구시보’를 통해 중국의 대응 논리를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펜스의 연설이 있는 후, 2018년 10월 9일 ‘환구시보’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온다. 「펜스 “격문”연설, 미국 정말 신냉전의 길로 가려하나?(彭斯“檄文”演講, 美国真要走“新冷战”之路?)」.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인의 입을 빌어 펜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냉전을 통해 미국의 동

20) 뉴스1: “중국을 붕괴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배넌
<http://news1.kr/articles/?3594236>

21) 동아닷컴: 스티브 배넌 “화웨이 죽이는 것이 무역 협상보다 더 중요”
<http://www.donga.com/news>

22) 미디어워치: 美 국무부, ‘중국 해체’ 위한 이론 설계 착수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

맹들은 같은 길을 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고립되고, 중국은 고립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강경책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美国对华强硬政策将適得其反), 미국이 중·러에 대항하고, 서방이 창립한 국제질서를 망치고 있다며, 유럽이 힘을 더해 기회가 되면 트럼프에 대해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다(华盛顿不仅对抗中俄, 也在摧毁西方创立的一些国际秩序……欧洲只有更加强大, 才有机会对抗特朗普带来的挑战). 이 글을 통해 살펴보면 중국은 미국과 서방, 특히 유럽 강국들이 미국과 연합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유대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11월 15일 ‘환구시보’에는 「미·중 냉전? 이런 웃기는 이야기로 위협하지 말아라(中美冷戰? 別用這樣的笑話當威脅)」라고 비난하는 사설이 실린다. 중국은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무역 파트너인데, 누가 중국과 ‘냉전’ 하길 원하겠는가?(哪一個願意與中國冷戰? 中國幾乎是所有那些國家的第一大貿易伙伴.)라고 묻고 있다. 심지어 냉전 구도로 가려면, 중국 주변국들을 어르기 위해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미국이 그럴 돈이 있는지 비아냥거리며, 웃기는 소리로 위협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있다.

중국은 ‘현존위협 대책위원회: 중국’(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CPD)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있다. 특히 핵심 멤버인 스티브 배넌에 대해서는 연속극에 가까운 시리즈 급의 기사를 쏟아내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²³⁾ 「냉전이 또 왔구나, 反中을 심도 있게 들추어낸 “현존위협위”는 뭐냐.(冷戰又回來了! 深度揭秘反華的美國“當前危險委”啥來頭)」(2019.07.11.)라는 기사는 그 제목의 어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냉전’과 ‘CPD’를 같이 엮어 비난하며, 스티브 배넌을 포함한 ‘CPD’ 구성원들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또한 ‘문명의 충돌’ 주장에 대해서는 「문명의 충돌이 숨기는 것은 패권주

23) 아래는 5월 15일~24일까지 스티브 배넌과 관련된 ‘환구시보’의 사설 및 기사이다.

- ① 社評：「歇斯底里的班农煽动美国陪他发疯」(2019.05.15.)
- ② 「班农：偏执且疯狂的“冷战活化石”扭曲中美战略关系的努力注定徒劳」(2019.05.16.)
- ③ 国际锐评 | 「班农之流才是美国之敌」(2019.05.17)
- ④ 社評：「班农恶语诋世，中美大戏方始」(2019.05.23.)
- ⑤ 「试图“分解欧盟”，班农在欧洲成多国政客喊打的“街头老鼠”」(2019.05.23.)
- ⑥ 「痴迷于维系霸权 狂人班农欲豪赌美国国运」(2019.05.24.)
- ⑦ 「光明日报：班农的底层逻辑与人类文明发展大势背道而驰」(2019.05.24.)

의다(文明沖突論)掩飾的是霸權主義」(2019.06.04.) 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명충돌”이 비판받은 후 또 “문명대결”을 선전한다고? 미국 고관의 발언이 많은 국제 학자들을 격분시켰다.(“文明衝突”被批後又宣揚“文明較量”? 美高官一言激怒諸多國際學者)」(2019.05.09.)라는 기사에서는 미국 학자의 입으로 異見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 한국, 베트남이 모두 한자문화권이기 때문에 美·中의 대립을 ‘문명의 충돌’로 정의하면 한국 베트남 등도 문명충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작금의 사태는 美·中간의 대립이며, 문명 간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진핑도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2019년 6월 4일 러시아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냉전사고, 문명충돌 등의 오랜 관념을 확실히 버릴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의 발언은 美·中 무역 전쟁을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대치한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보서는 안 된다는 중국의 일관된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²⁴⁾

4.3 한국에서의 美·中 대리전 양상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美·中의 여론전은 펜스의 발언 이후로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그들의 代理戰이 벌어지고 있다. 그 양상은 親美(反中), 親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美·中 대결이 초래한 한국의 위협을 알리고,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다.

첫째, 親美 성향의 사람들은 미국 매체의 보도를 자주 인용하여 反中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특히 한·미동맹을 강조한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고, 때로는 ‘親美反中’, ‘한미 동맹’ 등의 구호로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표현한다. 중국의 독특한 사회주의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감시사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주장하고, 중국이 G1이 되었을 때 한국은 과거로 회귀하여 조공 국가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표출한다. 한국인의 생각과 생활상에 자리 잡은 이데올로기와 시스템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문화임을 강조하고 미국 선택

24) 인터넷 조선: 시진핑 시대, ‘시장보다 정부 역할 중시’ 보수파 득세
<http://news.chosun.com>

을 당연시한다.

또한 이들은 美·中 대립을 통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의 현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安美經中의 패러다임이 끝났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美·中이 ‘가치의 대립’ 즉 체제 전쟁 구도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한국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며, 우리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가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전제하에 암담한 앞날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親中 성향의 사람들은 중국 매체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親中’ 혹은 ‘親中·反美’ 구호를 사용하여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 대체로 한국이 중국과 경제로 얼마나 끈끈하게 얽여 있는지를 강조한다. 경제지표를 주로 사용하여 중국의 GDP 성장, 14억 내수시장, 한국과 중국의 상대 국가에 대한 수출·수입의 순위를 설명하며, 중국을 통해 기회를 살려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때에 따라서는 중국의 경제 몰락이 한국의 경제 몰락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 중국의 체제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가급적으로 피하고, 중국의 현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자세를 취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美·中 무역 갈등 국면에 대하여 첫째, 한국사회 전문가들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정치 미디어 담론의 특징과 기능, 둘째 전문가 담론과 시청자 여론의 상호텍스트성, 셋째, 이와 같은 담론 생산을 추동하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담론의 사회적 실천의 연관성에 대해 비판적 담화분석의 방법론에 근거해 고찰하였다. 연구 자료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최경영의 경제쇼’ 미·중 무역 전쟁 전병서와 곽수중의 논쟁과 ‘김미경TV’의 美·中 무역 전쟁 관련 최병일과 이성현 저자 초대 대담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국내 전문가들의 정치 미디어 담론 1차원 언어 기술 측면에서, ‘전병서 vs. 곽수중’은 親中, 親美 성향으로 대조적인

찬반 논쟁의 구조를 이룬다. 반면, ‘최병일 vs. 이성현’은 美·中 대립의 본질을 탐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여준다. 전병서 vs. 곽수중은 논지 선점의 필요성이 있는 쟁점들과 관련해 먼저 주장을 제시하고, 상대방은 반론을 펴는 텍스트의 구조를 보인다. 또한 두 토론자는 현재의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대조적인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세부적인 텍스트의 특징은 전병서의 경우 은유, 공포 심리 기제 유발, 중국 체제의 독특함 설득, 간접화법의 사용 중심으로 주장의 선명성 보다는 차분하지만 모호한 입장표명(親中이지만 親中을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 방식) 방식을 채택한다. 반면 곽수중은 직접화법을 사용한 단정, 상세하고 체계적인 반론의 근거 제시, 오만한 톤으로 들릴 수 있는 정도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직설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둘째, 상호텍스트성에 대해 2차원 분석은 미디어 특성 분석과 청취자의 댓글에 대해 분석 하였다. 2차원 분석은 어떤 신념, 가치, 이념 등을 포괄하는 이데올로기가 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담론에 호응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단화(정치화)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경영의 경제쇼’는 진보적인 성향의 시청자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김미경TV’는 결혼한 여성이 주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경영의 경제쇼’와는 달리 ‘김미경TV’의 진행자인 김미경과 청취자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댓글 분석 결과 ‘최경영의 경제쇼’는 토론자에 대한 인물평이 중심이 되었다. 대부분 전병서를 칭찬하고 곽수중을 비난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親中’ 성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김미경TV’는 ‘親美反中’의 이념적 지향성을 선명히 하고 ‘중국 공산당(중공)’에 대한 반감 및 현재 진행되는 패권전쟁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두려움이 주를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해당 방송에는 ‘親中’ 성향의 댓글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경영의 경제쇼’는 전병서의 ‘親中’ 성향을 중심으로 청취자가 정치적 집단을 구성하는 반면, ‘김미경TV’ 시청자들은 대담자들이 제시한 논지와 질문에 따라 스스로 ‘親美反中’을 선택하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토론자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유보하는 전략을 통해 청취자의 답변이 그들의 이념적 방향에 걸맞는 논지와 답변

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성공적이며 전문가와 시청자의 상호보완성이 뛰어난 텍스트이다.

셋째, 사회적 실천 3차원 분석 결과 한국이 그동안 채택했던 ‘安美經中’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와 ‘中國夢’을 꿈꾸는 시진핑의 대립이 국제정치 지각변동을 일으켜 더 이상 상호협력이 아닌 갈등과 경쟁으로의 전환이 있었다. 중국의 국가 전략에 대해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설을 기점으로 전략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냉전’ 체제 선포, CDP: China(중국에 대한 현존위협 위원회) 설치, ‘문명의 충돌’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전략은 미국의 조치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띄고 있고, 그 반박의 지점들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상황을 美·中代理戰 양상의 측면에서 인식하여 ‘親美’와 ‘親中’에 드러난 특징을 구분하여 재조명하였다.

필자는 지식인들과 여론의 담론이 충돌하는 다양한 지점을 관찰하면서 궁극적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찾아보려는 의도를 가졌다. 우리의 실력을 배양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면서,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미·중 갈등 국면에 직면한 한국사회 정치 담론의 과열 현상은 피해야 할 것이다. 겨울이 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본 연구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나바로 피터, 『웅크린 호랑이: 중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가』, 이은경 역, 레디셋고, 2017.
- 미어세이머 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 이춘근 역, 김앤김북스, 2017.
- 엘리스 그레이엄, 『예정된 전쟁』, 정혜윤 역, 세종서적, 2018.
- 이성현, 『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중국편』, 책들의 정원, 2019.
- 이원표,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2001.
- 이원표, 『한국 정치담화의 언어학적 분석: 비평적 담화분석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2015.
- 이춘근, 『미중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김앤김북스, 2016.
- 이희옥,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역사, 현안, 전략」,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92호, 2018.
- 전병서, 『만리장성에서 길 잃은 한국, 출구는 어디에?』, 성균차이나브리프, 2017.
- 최병일, 『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국편』, 책들의 정원, 2019.
- 최윤선, 『비판적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2014.
- 최태훈, 「사드관련 환구시보 사실 비판적 담화분석-“完成部署薩德的韓國決不會更安全”을 중심으로」, 『한국중국언어학회』, 74, 2018
- 최태훈, 「협박과 회유의 이중 담화전략 — 환구시보(環球時報) ‘화위(華爲)’, ‘맹만주(孟晚舟)’, ‘캐나다(加拿大)’ 관련 사실 비판적 담화분석」, 『중국언어연구』, 81, 2019.
- 홍성국, 『수축사회 : 성장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메디치미디어, 2018.
- Fairclough, Isabela & Fairclough, Norman, 『정치담화분석』, 김현강·신유리 역, 박이정, 2015.
- 김미경, 「김미경TV」 상상 이상의 두려운 미래?! 알아야 살아남는 미중 무역전쟁 완전 정리!!, 유튜브, 2019.06.10.

<https://www.youtube.com/watch?v=WOZ7zGYJv-s>

김미경, '김미경TV' 미중전쟁으로 우리가 받는 피해와 앞으로 대비해야 할 일은? 유튜브, 2019.06.10.

<https://www.youtube.com/watch?v=ZFsk6dfG8IY>

김미경, '김미경TV' 미중전쟁 위기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면? 최악의 시나리오 피하는 법! 유튜브, 2019.06.11.

<https://www.youtube.com/watch?v=rBrkJtfCbRk>

박형기, '중국을 붕괴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배넌' 2019.04.10.

<http://news1.kr/articles/?3594236>

이희옥, '이희옥의 한반도 평화위치'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쪽 편드는 건 치명적 패착, 중앙일보, 2019.06.14. <https://news.joins.com/>

오광진, "시진핑 시대, 시장보다 정부 역할 중시" 보수파 득세, 2019.06.16.

<http://news.chosun.com>

조현영, '美 국무부, '중공 해체' 위한 이론 설계 착수', 2019.05.05.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995>

최경영, '최경영의 경제쇼' 美-中 무역전쟁] 전병서 "미국은 중국을 못 이긴다" 유튜브, 2019.06.11.

<https://www.youtube.com/watch?v=Tb-a6HatiEM>

최경영, '최경영의 경제쇼' 미-중 대격돌2 "뒤끝자락 중국 VS 안하무인 미국, 韓의 생존전략?" (전병서vs곽수중) 유튜브, 2019.07.03.

https://www.youtube.com/watch?v=43-sgNSZ__c

펜스, 마이크, '펜스 부통령 허드슨 연구소 연설 -2018년 10월 4일-한영 자막' 유튜브, 2018.11.12. <https://www.youtube.com/>

環球時報, '彭斯“檄文”演講, 美国真要走“新冷戰”之路?', 2018.10.09.

環球時報, '中美冷戰? 別用這樣的笑話當威脅', 2018.11.15.

環球時報, '冷戰又回來了! 深窺揭秘反華的美国“當前危險委”啥來頭', 2019.07.11.

環球時報, '文明衝突論'掩飾的是霸權主義', 2019.06.04.

環球時報, "'文明衝突'被批後又宣揚“文明較量”? 美高官一言激怒諸多国际學者', 2019.05.09.

❖ ABSTRACT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rough Comparison of Political Discourses in Korean Society on the Conflicts between U.S. and China

Choi, Tae-hoon
Konkuk University

Using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1) political and media discourses produced by experts in the Korean society in the face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2) the intertextuality between expert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and 3) the social practice of discourse that operates in relation to social structural problems. A number of YouTube channels, ‘Choi Kyung-young’s Economic Show: Jeon Byung-seo vs. Kwak Soo-jong’, and ‘Kim Mi-kyung TV: Choi Byung-il vs. Lee Sung-hyun’ are selected to examine the utterances of the experts within as well as the comments of the viewers for qualitative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first, Jeon Byung-seo vs. Kwak Soo-jong’s respective pro-Chinese and pro-American tendencies are characterized by a contrasting argumentative debate structure, while Choi Byung-il vs. Lee Sung-hyun’s were considered to be a collaborative problem-solution discussion structure. In the first channel, the ambiguous pro-China stance of Jeon Byung-seo using indirect speech methods was contrasted with the resolute pro-U.S. stance of Kwak Soo-jong using direct method speech methods. By contrast, in the discussion between Choi Byung-il and Lee Sung-hyun, both participants agree on most of the issues relating to questions like ‘What is the nature of the U.S.-China conflict? What is Huawei? Is it valid to maintain the contemporary diplomatic strategy: Korean security relies on the U.S. whereas its economy depends on China? What is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o forth. They both adopt an open problem-solving method that reserves their ideological stances and encourages listeners to judge and choose between the "pro-American" or "pro-Chinese" position themselves.

Seco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hoi Kyung-young's Economic Show' on the intertextuality between the experts' discourse and the viewers' public opinion were based on personality reviews of the panelists, which mostly consisted of praise for Jeon Byung-seo and criticism for Kwak Soo-jong. This was interpreted as an indirect expression of the listener's 'pro-Chinese' tendencies through character reviews. Conversely, the results of the 'Kim Mi-kyung TV' comment analysis showed a clear ideological orientation that was "pro-U.S. & anti-China" as well as fear and antipathy towar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terestingly, there were no "pro-China" comments.

Third, the link between social structure and discourse was described with a focus on the changes in American national strategy and the all-around measures for China announced by U.S. Vice President Pence in his Hudson speech. The following three points were explained: 1) the declaration of the New Cold War regime by the U.S., 2)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PD): China, and 3) details 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Then, the points of China's counterargument were explained. Furthermore, it is discussed that Korea has faced a situation similar to a proxy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because it has been forced to select one country between the two. Ultimately, this research explored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pro-U.S." or "anti-China" ideologies.

Key Words : U.S.-China Conflict, Political Discourse, Pro-U.S. & Anti-China, Pro-Chin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 논문접수일 : 2019. 08. 10

■ 심사완료일 : 2019. 09. 01

■ 게재확정일 : 2019. 09. 03